



“ 세상의 모든 상상력이 모이는 곳, 종합관에서 상상하라!

한성대학교 상상력의 중심, 종합관!

지하 2층, 지상 12층, 전체면적 22,754㎡ 규모에 교수연구실, 강의실을 비롯해

세미나실, 학생 휴게실 등 학생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상상력의 집합체,

상상플랫폼 종합관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

상상플랫폼 종합관에서
펼쳐질 상상력의 미래!



Contents

Hansung University Magazine
Vol. 98

발행인 이상한
발행일 2016년 6월 3일
발행처 한성대학교 대외홍보팀 02-760-4209
기획 ·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락



06 08 12 18 22 27 28

상상플랫폼	플러그인 상상	질문하는 상상	리드하는 상상	함께 나누는 상상	상상레시피 1	국경 없는 상상
세상의 모든 상상력이 모이는 곳, 상상플랫폼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무기를 탑재하라	자신의 잠재력을 상상력의 작은 정거장으로 만들어보자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의 상상력	IT TREND DICTIONARY	세계라는 무대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다

33 34 38 42 46 54 56

상상레시피 2	도전하는 상상	대표하는 상상	With Hansung	HANSUNG NEWS	발전기금	모집요강
DESIGN TREND DICTIONARY	패기와 아이디어로 도전하다	당당한 아름다움에 빛나는 우리 학교 홍보 대장	'작지만 강한 한성'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교두보	한성대 상반기 뉴스 / 대학원 뉴스		2017년 한성대학교 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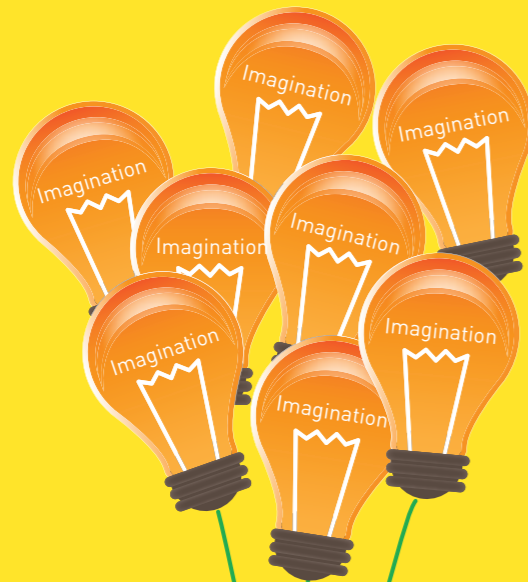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상상력이 모이는 곳, 한성 상상플랫폼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한성인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이노베이터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이라는 나침반으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가는 한성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며 더 큰 느낌표의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과정에
한성이라는 상상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상상플랫폼으로 초대합니다.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글. 임헌우 ((스티브를 버리세요)저자, 디자이너)



“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할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다
”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인류의 역사는 '상상력 박물관'

인간은 정확히 98.77% 침팬지의 유전자 구조와 일치한다. 하지만 침팬지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1% 남짓의 차이이다. 이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베르그송이 '창조적 진화(The Creative Evolution, 1907)'에서 언급한 '호모 파베르'(Homo faber), 즉 도구적 인간이란 개념이다. 침팬지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능력'의 차이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제기된 '문제

(Problem)'를 '해결(Solution)'하기 위해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사피엔스)이 약 7만 년 전 인지능력을 갖추면서 위대한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주장한다. 인지능력으로 단순한 상상을 넘어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한다. 생각 도구가 인간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다.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상상력의 세계사'이며 동시에 '상상력 박물관'이 될 것이다. 돌도끼에서 컴퓨터까지, 놀이에서 테마파크까지 그것이 인간이 고안해낸 물리적 도구이든 새롭게 발견해낸 개념이든, 모두 상상력의 신세를 지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상상력은 이렇게 인간을, 세상을 바꿔왔다.

두 번째 인지혁명, 상상력의 시대

일본의 대표적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지식근로자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단언한다. 지식은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자체로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즉 상상력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도구적 인간, 호모 파베르를 넘어 호모 이마기난스(Homo Imaginans), 즉 상상하는 인간으로 학명을 재정의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기술적인 차이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담보하기 어려울수록, 사회는 점차 사람들의 상상력에 희망을 걸게 될 테니가 말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두 번째 인지혁명의 시대를 상상력이 열여갈 것이다.

상상력은 괴짜들의 기발하고 남다른 생각?

우리가 상상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는 생산성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시대의 생산성은 손으로 대표되는 신체의 일부를 사용해서 탄생했다. 그래서 제조, 생산을 뜻하는 영어의 manufacture란 단어는 '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의 생산성은 머리, 즉 생각을 움직여서 나오게 된다. 상상력이 생산성인 시대인 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상력은 자신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상상력은 나와 다른 부류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 또는 천재들의 아이디어로 치부해 버리기 십상이다. 이전의 업무 프로세스는 비교적 간단했다. 누군가 시키는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능력이었다. 그것들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컴퓨터의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알고리즘인 것이다. 기억해두자. 상상력은 나와 다른 괴짜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생각이다. 인지심리학자 토마스 워드(Thomas B. Ward)는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본성적'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창의적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기심은 상상력의 문을 여는 열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뿐'이라고. 호기심은 자기 내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간직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5살 때가 가장 창의적'이라는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호기심과 결별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상상력을 만화 속이나 존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철'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철'이 들면서 우리의 생각은 딱딱하게 굳어간다. 어쩌면 누군가 말했듯이 '호기심이 없으면 죽은 것'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상상력 근육도 성장을 멈추게 된다.

상상력은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상상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관성적 생각일 것이다. 좋은 상상력의 기반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면 천재가 필요하지만, 남들과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는 기다리면 그냥 찾아와주는 버스가 아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관심으로 관찰하고 호기심으로 질문하며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상상력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부딪치며 섞이는 생각의 칵테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자. 그냥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자. 상상력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원칙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수직적 관계를 해체하는 수평적 사고

에드워드 드 보노는 '수평적 사고'를 강조했다. 산업시대에는 수직적 지식이 가치를 생산했다. '분업'은 이러한 수직적 사고를 대표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서

로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다. 기존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수직적 지식을 수평적으로 연관시켜볼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이 탄생한다. 이제는 정보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즉 정보의 배치와 조합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 디자이너였던 폴 랜드가 말했듯이 '상상력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들을 창조하고, 명백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의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와 낯설게 보기

슈클로프스키가 주장한 '낯설게 하기'는 반복되거나 일상화되어 익숙한 것들을 다른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낯설게 하거나 낯설게 보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맥락을 바꿔보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해 보자. 카메라는 휴대전화에 달리면 통신수단이 되지만, 고속도로에 달리면 단속장치가 된다. 길거리에서 깡통을 두드리면 음악적 장난에 지나지 않지만, 공연장에서 두드리면 뮤지컬 '난타'가 만들어진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 '낯설게 하기'를 시도해보자.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바로 이 '낯설게 하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하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는 책상 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상상력 3관왕 - 관심과 관찰, 관계의 발견

좋은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 먼저다. 좋은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호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좋은 상상력의 기반은 기존의 관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나 기존의 습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스팀청소기의 탄생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스팀다리미와 대걸레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낸 결과이다.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상상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결국 관심, 관찰, 관계의 발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상상력 3관왕'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다.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관찰하며 이전에 관련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해 보라는 얘기이다.

마지막으로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상상력이 스펙이다'

대학생들은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자신의 전공보다 스펙에 더 치중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다.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위해, 남들과 비슷한 경험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모두들 같아지고, 서로를 닮아간다. 상상력은 없다. 그저 지루한 복사만 있을 뿐.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이 과연 비슷한 스펙과 잘 다듬어진 경력에만 존재할까? 스펙을 공부처럼 준비한다면 금방 질리게 된다. 스펙이 의무나 과제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스펙이 아니라 내부에 스트레스를 쌓는 것이 된다. 스트레스로 만들어진 스펙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기대가 없다. 따라서 감동이 없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스펙을 쌓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쌓아보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스펙을 상상해 보자. 내일의 변화를 염려하지 말고, 10년 뒤의 변화를 상상해 보자. 머리에 단순히 지식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담아 보자. 다른 사람에게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것. 그것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만의 하루를 만들어 보자. 나만의 상상으로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할 무엇인가를 시작해보자. 나의 단점을 보완하려 애쓰지 말고, 나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자. 나의 단점을 나의 특별함으로 바꾸어보고,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시작해보자. 네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친절한 길을 버리고 상상 속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그래서 지도에는 없는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만들어보자. 그것이 나만의 스토리가 되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진정한 내가 아닐까? 그게 나의 진정한 스펙이 아닐까?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서 스펙을 발견해보자. 스펙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나만의 스펙을 만들어보자. 나와 나의 꿈을 위해 뭔가를 저질러 보는 상상. 멋지지 않은가? 그래, 그리고 그냥 저질러 보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기에.



질문하는 상상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무기를
탐재하라

혹독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른바 '고용 빙하기'의 가파른 언덕을 넘어오고 있다. 최근 창업 열기가 끓어오르면서 캠퍼스에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추세.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들이 야심찬 청년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창업을 미리 체험하고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홍정완 SK 청년비상사업단장과 세 명의 창업동아리 팀장들이 만나 청년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담 참석자 홍정완 SK 청년비상(飛上)사업단장, 창업동아리 '위니' 김환중 팀장(정보시스템공학 4학년 09학번), 'KS&Con' 정진웅 팀장(행정학과 4학년 10학번), '심상가족' 박형준 팀장(경영학과 3학년 11학번)

conversation

아직은 미완의 대기, 이제부터가 시작

홍정완 단장: 창업동아리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각 동아리마다 겪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박형준 팀장: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기본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시제품을 내는 것도 어렵고 아이디어가 바뀌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정완 단장: 다들 느끼는 부담이기도 한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스텝대로 움직이는 것



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단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고안한 아이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이지,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정진웅 팀장 : 저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

체 계 적 인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의 힘을 얻다



'위니' 김환중 팀장



'KS&Con' 정진웅 팀장



'심상가족' 박형준 팀장

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계획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오고 많이 부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중 팀장 : 저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3건이나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도 큰 것 같습니다. 제 아이템만 가지고 생각하다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홍정완 단장 : 아마 지금의 고민이 좋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 신선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금세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준 팀장 : 저희 동아리는 사업 아이템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조금은 낯선 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성공할 것인가 자문해보기도 하지만, 창업 강좌를 들으며 긍정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정진웅 팀장 : 저희 동아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과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트렌드이긴 한데 아직까지 붐이 일어나기에는 시기상조여서 단기간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꾸준히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 'KS&Con' 동아리 / (하) '심상가족' 동아리



'위니' 동아리

김환중 팀장 : 저희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황인데, 매출 부분에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일찍 창업을 시작했고 나름의 노하우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간 생각이 많았는데 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꾸준히 하며 인지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단이 가까이 있어 필요할 때 찾아가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정완 단장 :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수록 처음 생각했던 아이템에서 벗어나 점점 잔가지들 많이 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 그럴 테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럴 텐데 당초 설계했던 초기 타겟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힘을 내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창업 동아리네요 |

'위니' 김환중 팀장 외 1명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회사로, 고시원 운영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모아 서비스하고 무료로 홍보하는 등 고시원 포털 관리시스템을 전문으로 한다.

'KS&Con' 정진웅 팀장 외 4명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호텔이나 유치원이 아닌 가정집을 활용해 GP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가깝고 편리하게 맡길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심상가족' 박형준 팀장 외 4명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 서비스.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터치해주는 취지로 힐링 콘텐츠, 심리상담소 소개, 심리상담가 매칭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청년사업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 성공의 문은 좁고도 험한 길인 만큼 중도포기를 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실이다. SK청년비상사업단 홍정완 단장은 우리 한성인들이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살리는 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한다. 자기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 믿기 때문이다.

홍정완 교수 (SK청년비상사업단장)

interview

무궁한 상상력은 청년 창업을 이루는 원동력

성공적인 창업을 이끄는 길잡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창업동아리를 육성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SK 청년비상(飛上)사업에 선정되면서 SK 청년비상사업단이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SK그룹이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진행될 SK 청년비상(飛上)사업은 전국 2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3억 원을 정도 지원받아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학생창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수한 창업팀은 SK그룹이 직접 통합캠프를 통해 선발하여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매 학기, 6개의 창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실탄’을 지원받게 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단장은 이 사업의 처음 기획 단계부터 담당해 왔기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해본다.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시작했지만, 그간 학교 차원에서 뭔가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그는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학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던 차에 다행히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학교 모토인 상상력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분야에 서만큼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교로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창업과 상상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말하는 홍정완 단장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을 구체화해서 나오는 성과물이 창업 아이탬이라 생각하고 있다. 처음 냈던 아이탬으로 사업을 끌어나가는 것은 기껏해야 3년 남짓, 따라서 3년 주기로 리뉴얼을 해야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또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탬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기회는 준비하는 이의 몫

우리 학교 창업동아리의 경향은 일반 창업보다는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창업이 강세. 특히 체계적인 창업 동아리 운영을 위해 ‘B.E.S.T’ 즉, ‘Business’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Entrepreneurship’ 창업 강좌를 통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심어나가며, ‘Strategy’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Teamwork, Together’ 팀원들과 같이 일하는 훈련, 서로 역할분담 하는 훈련을 하는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3월에 궤도에 오른 만

큼 SK청년비상사업단의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런 만큼 홍정완 단장은 이번 여름방학에 있을 SK그룹의 통합 창업캠프에서 우리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이 보여줄 ‘멋진 한방’을 기대하는 눈치다.

“SK청년비상사업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 SK그룹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양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사업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홍정완 단장은 SK그룹 관계자에게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물었다는데 ‘우리는 2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한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답을 듣고 이런 의지를 가진 대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이니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청년 기업가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학교와 지원하는 기업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힘을 모아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SK청년비상사업단이 앞으로 펼쳐갈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이 잘 하는 것,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살리는 전략을 세우고 졸업할 때까지 밀고 나간다면 그 학생의 대학생활은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정완 단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0년 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한다. 지금처럼 사회분위기가 변해간다면 창업하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자신의 잠재력을 상상력의 작은 정거장으로 만들어보자

글. 이정숙 명예교수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보낸 한성에서의 34년

1982년 봄부터 한성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올해 2월에 정년퇴임을 했으니 34년을 근무했다. 살아 온 날의 절반 이상을 한성대학교, 그리고 삼선교에서 보내왔다. 삼선교에 이어진 성복동 삼청동이 모두 내 활동 영역이 되어 봄날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한 때는 인왕산 자락을 꽃동산으로 덮은 봄날의 풍광을 즐기면서 일부러 가회동을 거쳐 성복동을 지나 출퇴근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주변에 유적지나 현대문학 관련 문학 탐방할 곳 등이 의외로 많아 전공자로서의 눈도 밝아졌고 관련 자료가 들어가면서 학식도 쌓여 갔다. 우리 학교가 있는 낙산을 중심으로 한 창신동 일대의 역사자료와 유적지 탐방, 대학로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들을 사랑했다.

상상력은 수면 아래의 잠재력을 깨우는 힘

상상력! 좋은 말이지만 없는 상상력을 어디서 찾는다 말인가. 그 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Input이 많아야 거기서 Out-put이 가능하다는 얘기.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전에 누가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처음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읽고 생각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터득되면서 그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오기 때문이다. 살면서 참 신기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그야말로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일부분일 뿐이고 더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겨 아직 세상에 드러나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런 다른 자신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컬어 잠재력(潛能力, potentiality), 수면 아래 혹은 땅 속에 숨어 있는 힘을 꺼내어 세상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게 당연히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나 자신이 상상력의 작은 정거장이 되는 것이다.

내 전공과 연결해서 보면 가까운 우리 학교 주변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석 같은 장소에 반짝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널려 있다. 그에 대한 지식들을 남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게 시작될 수 있다면 그런 게 리드하는 상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지식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지식들과 만나 새로운 주제로 바뀌어 나올 때 나만의 창의적인 이야기가 된다. 우선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아니면 좋아하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파고 들어가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 지점에서 바로 나만의 생각이 나오게 되기도 한다. 내 경우로 한정하면, 여러 작품들을 계속 읽어서 내 안에 넣어 주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쓸 거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자들에게 가능성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덕분에 비교적 많은 논문을 썼고 쓴 책이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보람도 느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소박한 방법

내가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 감사할 일이 매우 많은 것도 모두 우리 학교를 터전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며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든 표시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재임 때부터 월급에서 조금씩, 퇴임할 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장학금 기부 생각도 하게 되었다.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을 말하자면, 난 유난히 미안한 걸 많이 느끼면서 산다-그것도 전적으로 내 생각이지만-고 생각한다. 신문에서 학교 관련 여러 유형의 순위에 우리 학교가 안 보여서 미안하고 논문 인용지수 높은 데에 우리 학교가 없는 것도 미안하다. 학교에 재직해 있는 동안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되고 반복되어 왔다.

학교 사정이 안팎으로 힘들 때 퇴임을 하니 동료교수들에게 또한 미안하다. 학사협의회 때 퇴임식에서 동료교수님들께 말씀드렸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의 존재에 감사하자고. 사실 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근무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면 학교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질 것이다. 교수되기 어려운 때 교수가 됐으니 개인적으로 교수가 막 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지난 34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학교는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렇기에 요즘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리라. 기도하는 마음이다.

지난 고별 강연에서 학생들에게도 늘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고맙고 대견할 수가 없다. 가끔 강의실에선 학생들에게 대놓고 무식하다고 잘난 척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학생들은 옛날 우리가 당연히 알던 많은 것들을 모르는 것뿐이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알고 있는 21세기형 많은 지식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도 총량을 따진다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20세기 혹은 그 이전의 고답적인 지식과 문제제기가 21세기형의 감각적이고 신선한 생각들과 만나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다. 그것이 상상력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리드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정숙 명예교수는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도서관장, 학술정보관장, 언어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올해 정년퇴임을 하며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고, 구리시 예인아동센터 '미래인재육성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자원과 관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상의 언어, '춤'으로 말하다

정석순 무용가 (현대무용학과 02학번)

춤은 참 어렵다. 보는 이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몸짓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렵고도 아름다운 춤을 '업'으로 삼은 무용가 정석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언어가 '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흥분과 감동이 함께했던 뉴욕 공연, 미국 무대 진출의 교두보

지난 4월 29일, 한국의 신진안무가들이 뉴욕에서 열린 '라마마 무브스 댄스 페스티벌'에서 오프닝 공연을 펼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석순이 이끄는 '프로젝트S'이다. 그는 이미 유럽 무대에서는 인지도를 쌓은 젊은 무용가지만, 이번 공연은 미국 무대 진출의 교두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의미 있었던 공연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미국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던 차에 한국문화원에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라마마 씨어터는 이사도라 던컨이 현역 시절 활동했던 현대무용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00년도 더 넓은 유서 깊은 무대에서 수준 높은 관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 긴장도 되지만 그만큼 흥분과 감동이 함께했던 무대였습니다.”

관객은 물론 현지 무용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정석순은 여러 곳으로부터 콜을 받기도 했고, 이후 9월에 다시 이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을 하고 있다.

현대무용학과 02학번인 정석순은 23살에 '동아무용콩쿨'에서 대상을 수상해 무용가로 데뷔했고, 대학원을 마친 후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 생활댄 무용단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유럽에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오디션에 합격해 정식 안무가로 발탁되면서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는 그는 '아무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말하고 웃어 보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석순은 예술가로서 짊어져야 하는 고뇌와 번민 앞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가서 자기 성장을 거듭해왔다. 유학생활 동안 혼자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그는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춤을 추는지와 같은 외로운 마음을 담아낸 <고요함과 정적 사이>라는 첫 작품을 무대에 올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안무가로서 여러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뿌듯하면서도 아팠던 작품으로 3년 전 서울무용제에 올렸던 <Blue 2.0>을 꼽는다. 경연

부분 최연소로 올린 작품이기도 한 <Blue 2.0>은 청년실업 3포 세대의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현실적인 주제였던 만큼 이 공연은 관객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함께 울고 느꼈던 의미 있는 공연으로 남아있다.

상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 춤

“무용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그려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무용가에게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만큼 정석순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 부단히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꿈꾸며 상상한다.

“무용가로서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대에 설 때겠지요. 관객들이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한창 예민할 때는 커튼콜을 마치고 대기실로 오는 순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와 평평 울기도 했었다니 강인해 보이는 외모 뒤에 예술가다운 섬세한 감성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무용가 정석순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성대 현대무용과는 88학번 강경모 선생님을 위시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한 학교, 단일 파트에서 무용가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우리 후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무용가, 안무가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미국무대에서 인정받는 무용가, 안무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정석순의 꿈. 무대에 올라 벅찬 감동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무용가 정석순은 누구나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작품에 녹여내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가 예술가로서 뜨거운 가슴으로 무대를 잘 만들어 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함께 나누는 상상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의 상상력

사람 사는 세상의 풍경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주변의 결핍을 돌아보며 오히려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을 만나보자.

참 좋은 사람, 그대를 만나 다행이다

국제교류협력팀 한울봉사단 참여 | 마홍뢰 (정보통신학과 14학번)



국적은 다르지만 봉사를 위해 함께 손을 잡은 젊은이들

마홍뢰 학우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남짓.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정보통신학과 수업을 100% 이해할 만큼 그는 언어습득이 빠르고 우리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던 형의 추천으로 마홍뢰 학우는 우리 학교 정보통신학과에 입학했고, 신입생이던 해에 국제교류협력팀 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울봉사단원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한울봉사단에 가입한 이유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견문을 쌓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울봉

사단은 한국 학생들은 물론 중국, 일본, 몽골, 네팔 등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또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 이유도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봉사라는 좋은 취지로 뭉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다

“1학년 2학기 때 봉사활동을 처음 나간 곳이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이었습시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거라 생각해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집을 방문해보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났

습니다.” 솔직히 중국에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마홍뢰 학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서 그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한울봉사단에 들어오면서 평소 관심 없었던 봉사, 남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내성적인 성격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러가던 날, 고맙다며 인사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마홍뢰 학우는 불현듯 중국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 집에 전화를 걸기도 했었다.

중국 유학생이다 보니 가끔은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실수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냥 웃으며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한다.

“3학년이 되면서 많이 바빠졌지만 이를 핑계로 봉사활동을 빼먹거나 게으름부리고 싶진 않았습시다. 3년 정도 봉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며, 그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마홍뢰 학우는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봉사는 노력과도 같기에 단순히 봉사점수를 채우거나 개인 스펙을 쌓는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열정’과 ‘소통’이라는 교사의 덕목을 배우다

온드림 스쿨 다빈치 교실 봉사 참여 | 글. 김의정 (무용학과 12학번)

현대 정몽구 재단 온드림 스쿨 다빈치교실에 참여한 우리 팀은 나를 포함 총 4명으로 모두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다. 1학년 때부터 무용전공과 함께 교직 이수를 하고 교생실습을 하면서 무용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무용프로그램 제작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든 수업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던 차에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 정몽구 재단에서 주최하는 온드림 스쿨 다빈치 교실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졸업 전 우리가 가진 재능을 농어촌 학생들에게 주고자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다빈치 교실 봉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그 대상이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농어촌 학생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접 학교 사택에서 먹고 자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 즐거웠던 부분이었다. 농촌이다 보

니 수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사용이 어려워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으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가끔 난방이 되지 않아 감기에 걸리는 팀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농촌이었기에 즐거웠던 부분도 많았다. 수업이 끝난 후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너무나도 순수한 농어촌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져 하루하루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알려주고자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무용이 아닌 다른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놀이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무용을 순서만 알려주고 배우는 방식이 아닌, 직접 놀이와 노래를 부르면서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

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상상한 결과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열정’과 ‘소통’이라는 교사의 덕목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훗날 반드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크고 빛나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다빈치교실은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꿈에 대한 확신과 열정, 깨달음을 얻게 해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 팀원들은 현재 졸업을 하고 각자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직접 무용을 배워서 공연을 하는 팀원도 있고, 유아무용 교육을 하는 팀원들도 있다. 이번 다빈치 교실을 통해 졸업 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기에, 언젠가 꼭 다시 팀원들이 뭉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무용 봉사를 하고 싶다.

예술이 일상과 만났을 때 주변의 풍경이 달라진다

한성대 벽화봉사단 참여 | 글. 도건우 (회화과 1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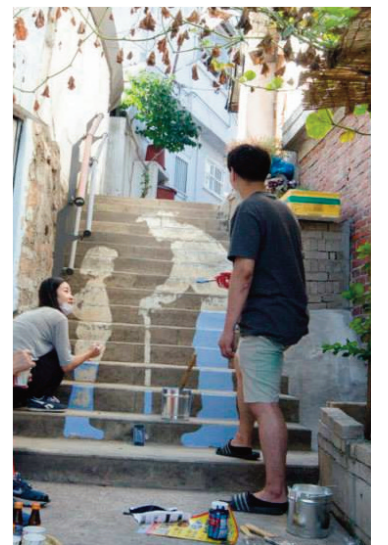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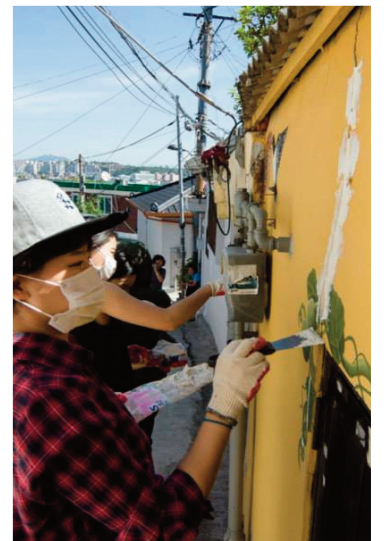
이 시대의 예술은 과연 사회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도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의 경쟁 속에서 학교 뒤편의 두 성곽마을 ‘369마을’과 ‘장수마을’의 프로젝트 진행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회화과 정현이 교수님은 회화과의 학생들이 더이상 실기실 안에서 혼자 창작의 고통과 끙대며 싸우는 것만이 아닌 사회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험을 알려주기 위하여 포스트-스튜디오 오라는 수업을 개설했다. 나는 2015년도 2학기에 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수업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장수마을에 지역매니저들과 미팅을 가진 뒤 마을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했다. 미팅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벽화였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이화마을 주민의 벽화 지우기는 장수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은 벽화봉사단이 그리고 간 벽화들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허물어져 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정현이 교수님, 김남훈 교수님은 지역매니저와 주민과의 합의 하에 벽화를 다시 지우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벽화를 지우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제일 문제였던 지점은 학생들 또한 이 작업들을 ‘수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하게도 수업 외의 시간에는 마을에

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소통은 끊기고 아마도 종강 후에 다시는 마을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문제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주최하는 행사(핸드메이드마켓)들에 참여하고 그림을 배우고 싶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전통화 학교’를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박정훈 지역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서 했던 작업들로 12월 3일 문래동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주민들과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상상력을 나누었고 그 결과 아주 재미있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려와 다르게 학생들은 방학 때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소소한 작업과 도움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이번 학기 또한 주인이 없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전시를 열기로 하였다.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현시대의 지역사회를 예술가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앞으로 계속 탐구하며 이 어려운 작업들을 지켜보고 싶다.



나의 작은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상상력을 전파하다

성북구 미래나눔학교 참여 | 글. 이예빈 (행정학과 15학번)



나의 취미를 굳이 뽑아보자면, 매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지사항을 확인하는데 '한성대 미래나눔학교 장학생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성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활동이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활동혜택에 더 눈길이 갔다.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장학금 400만원이 준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의 선택은 없었다. 단순히 지원, 감사하게도 결과는 합격이었고 현재까지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큰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다. 봉사활동은 일주일에 두 번, 4시간씩 총 8시간을 하고 있다. 주로

가면, 2시간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가르치고 나머지 2시간은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을 가르친다. 학원 아르바이트 및 과외 경험이 있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두려움이나 겁 없이 시작한 봉사였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센터 아이들은 밝은 가운데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쉬이 혼내기가 조심스러웠다. 몇 주간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참 많이 고민했다. 내가 만약 아이들이라면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았다. 친구같이 다정하면서도, 선배로서 잘못된 행동을 따끔히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였다.

센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포레들과 함께 있다 보니,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떠들기에 바빴다. 하루에 해야 할 양이 있음에도, 떠들다만 가는 아이들을 보며 처음에는 허탈했다. 무작정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아이들과 내게 모두 힘든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방법을 달리 해보는 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집중을 못하는 아이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애초에 집중할 시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싶었다. 15분 수업하고 5분 쉬는 형식을 택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에 점차 재미를 붙였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행복했다. 우리 센터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었다. 미래가 막막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줄지 막막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찬찬히 찾아보는 시간을 매 시간 꾸준히 가졌고 그 미래를 상상해 보도록 이끌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자신의 꿈을 상상하며 한참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것 외에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어야겠다는 의무감이 점차 생겼다.

'한성대 미래나눔학교'는 단순히 교육봉사만 제공하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소외계층에 속하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미래나눔학교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는 다시는 이런 모순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미래나눔학교 장학생들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도전할 것이다. 우리 장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학생들 또한 이 사회에 따뜻한 상상력을 전파하길 소망한다.



상상력 레시피-1

IT TREND DICTIONARY

디바이스 메시(Device mesh)

기기 장치라는 뜻의 디바이스(Device)와 그물이라는 뜻의 메시(mesh) 두 단어의 합성어로 우리가 이용하는 IT 기기들이 상호작용 및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흔히 스마트폰과 냉장고 또는 세탁기 심지어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디바이스끼리 마치 하나처럼 제어 가능한 것이다. 디바이스 메시는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등 쉽게 제어할 수도 있고 정수기와도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정수기에 직접 가지 않고도 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넓게 보자면 디바이스 메시지를 통해 사람과 정부, 기업, SNS까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IT 기업들은 다양한 IT 기기들 간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만물 정보(loE)

Internet of Everything의 약자로 사물인터넷(loT)이 확장된 개념이다. 유무선 통신망으로 사물은 물론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연결돼 지능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일을 처리하는 것

을 뜻한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메시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사용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10대 IT 전략 기술로도 선정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정보의 양 또한 반대해지고 있는데, 이 반대하고도 많은 정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loE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D 프린팅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3D 프린팅은 현재 한 가지 재료만이 아닌 유리, 탄소섬유, 전자기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프린트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때문에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에너지, 자동차, 우주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공장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머지않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장기 이식 없이도 인공 장기를 통한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경 없는 상상

세계라는 무대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벗어나면 내 인생의 영역이 확장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국경 없는 다양한 상상력을 체험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지도를 완성해 가는 4명 한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아보면서 해외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ICCE 인턴

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프랑스, 미국 남부 등의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접해볼 수 있었다. 특히나 텍사스는 멕시코와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멕시코 문화와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전공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1년 간 단순 업무만을 반복하는 계약직이 될 수도,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일에 익숙해졌을 때 업무상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재미를 찾을 수 있었다. 불편한 점을 고민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헤쳐나갔다.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물류 기업에서의 인턴십은 그 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적성과 가치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앞으로는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분야에서 배우고 경력을 쌓고 싶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소통하며 발견하는 나의 꿈

미국 텍사스 해외 인턴십 참가 | 글. 주성현 (무역학과 09학번)

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원하는 회사의 텍사스 지점에서 잡 오퍼를 받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주말이나 연휴에, 혹은 휴가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인턴십 기



프랑스 국민 동화 '꼬마 니콜라'에는 말쑥 꾸러기이자 제멋대로 구는,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악동들이 나온다. 아니 이들을 앙팡테리블(무서운 아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미워할

격했다. 과연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일까? 봉사 지역에 가기에 앞서 봉사단원들은 봉사 대상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구상, 한국을 알리는 문화 공연 등을 약 두 달 동안

힘든 여정을 끝내고 숙소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 봉사 단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참으로 많았다.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들 또한 범상치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인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극단적이었을 뿐이다.

봉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달라졌다. 처음의 그 폭력적(?)이고 인간답지 않는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드디어 아이들이 마음을 연 것일까? 결국 마지막 날 난타 공연 등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을 끝내고 단원들은 아이들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허벅지를 걷어찼던 아이도 찾아와 울음을 터트리며 안아줬다.

18일간의 대장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제 나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단 하나의 풍경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함께 눈을 마주쳤던 순수함이다.

해외봉사, 꿈과 변화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다

20기 해외봉사단 참여 | 글. 김동욱 (문헌정보학과 11학번)

수는 없다. 말쑥 속에서 순수한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악동들을 태국에서 만났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과 헤어진 지 4달이 흘러가고 있다. 처음은 지인의 권유였다. 새로운 경험과 색다른 인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지원을 했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해외봉사단원에 당당히 합

준비했다. 매주 주말, 시험기간을 가리지 않고 준비는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고통스러웠다. 더욱이 나는 봉사단의 팀장을 맡게 되어서 더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태국 공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태국 치앙마이 공항까지 5시간, 다시 그곳에서 봉사지역인 우파라딧까지 4시간이 걸렸다. 총합 9시간의



나는 평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행동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행하지 않았던 터라 지금껏 이렇다 할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생 연합 봉사동아리에

불이 붙게 되었다. 돌아보면 외국인 학생에게 동의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말했더니 중국인 친구가 '쌀쌀하다'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나는 '뭉이 시리다'와 비슷한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시리다?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왔다. 나는 당황해 하며 간단히 말해서 '춥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제서야 그 친구는 이해하는 것 같았다.

'글로벌 소통'을 통해 봉사활동의 도화선에 불이 붙다

한성엠버서더 참여 | 글. 이대성 (경영학부 14학번)

들어가기 했지만, 한 번도 실질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마음 속 한편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행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성 엠버서더' 모집 공고를 보았다. 외국인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재미있겠다는 생각과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나의 봉사활동의 도화선에 드디어

외국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나의 배려심의 폭이 좀 더 깊어졌다. 매사에 성미가 급하고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던 나는 중국인 학우인 리만과 지내다 보니, 어느덧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다. 리만과 몇 번 갔던 학교 앞 커피숍 주인 아주머니는 리만에게 "남자친구가 정말 자상하네"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다. 성질 급한 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외국어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외 인턴십 참가 | 글. 방다솔 (의류패션산업과 12학번)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행,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등의 방법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인턴십이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것에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말이다. 졸업 후의 진로를 뚜렷하게 갖고 있던 그 당시, 향후 섬유외류 수출 전문업체인 벤더 회사(Vendor)의 해외 영업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해외 인턴십은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해외 영업팀을 들어가면 'ZARA', 'H&M', 'FOREVER 21', 'GAP' 등 다양한 미주 바이어(Buyer) 들을 상대하게 된다. 누구나 아는 글로벌한 회사지만 생산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을 외부에 조달하

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바이어들이 원하는 원단을 찾고, 의견을 조율하며 맞춰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의 관점에서만 예뻐 보이는 옷이 아니라, 글로벌한 고객들을 위하여 수출하게 될 그 나라의 문화, 날씨, 스타일, 즐겨 하는 갈라등을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LA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도시이자 패션 회사들 또한 많이 밀집해있는 곳이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소비 행태, 정서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1년의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지냈던

것 같다. 인턴십 1년이라는 과정이 언제 끝날까 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주일 단위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막하게 지냈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던 그 곳에서 인간관계도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차를 구입하고 새롭게 현지 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이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결정들까지도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가 무단 도용되어 미국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직접 걸고 해결을 했었던 일, 그랜드 캐년으로 친구들과 차를 타고 놀러 갔을 때에 STOP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해 경찰에게 붙잡혔던 해프닝 등은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많이 단단해졌다. 상상에만 그치지 않게, 생각한 것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매 순간 생각했다. 예상치 못한 일들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모험들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성숙해 질 수 있었다.

이번 인턴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부딪치고 성장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은 결국 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지,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앞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눈 앞의 어려움만 보고 힘들어하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미래를 그리면서 하루 하루 성장하고 싶다.



상상력 레시피-2

DESIGN TREND DICTIONARY

유행컬러를 미리 선별하는 컬러 계의 사넬, 팬톤(PANTONE)

팬톤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색상 회사이다. 팬톤은 1963년 그래픽아트에서 정확한 색상 구현을 위해 컬러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이후 팬톤은 디지털 기술,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인테리어, 페인트 등 색상이 중요한 산업에 컬러 매칭 시스템의 개념을 확장했다. 그 외 다양한 컬러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하였고, 설계 및 생산 전문가의 색깔 요구에 있어 정확도를 안겨주었다.

팬톤은 패션, 제품, 뷰티, 건축, 인테리어 등 각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그 해의 컬러를 발표하고 트렌드와 변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매년 팬톤이 발표하는 컬러를 패션, 뷰티 등 모든 업계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만든 컬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Color of the Year- 2016년 트렌드 컬러, Rose Quartz + Serenity

2015년에는 마르살라(Marsala)라는 채도가 낮은 적갈색에 가까운 붉은색 컬러가 선정되었다. 이 마르살라가 전통적, 클래식, 자신감, 안정감을 주는 컬러였다면 2016년에는 핑크에 가깝고 하늘색에 가까운 파스텔 톤이 선택되었다. 팬톤 컬러 연구소장 리트리스 아이먼의 말에 의하면 "2016년의 색상은 색상의 전통적 편견을 깨고 색의 조화의 반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 특히 성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디자인 모든 분야에 걸쳐 색채, 트렌드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며 색채에 성별이 모호해지는 경향은 성 평등과 성적 다양성 같은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미 Rose Quartz + Serenity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더 이상 핑크는 소녀의 컬러가 아니고 더 이상 블루는 남성의 컬러가 아니다.

도전하는 상상

패기와 아이디어로 도전하다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은 다듬어지지 않아 힘들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개척해서 발굴한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만의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4인의 한성인을 만나보았다.



나만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라!

한성대 영화제 <행복한 아홉수>로 우승

글. 정지윤 (시각영상디자인과 11학번)

평소 같은 과 친구들과 영상 동아리를 만들어 CF,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해 보았다. 그러던 중 졸업을 하기전 1인 미디어로 웹드라마를 제작해 보고 싶어졌다. 마침 좋은 기회로 제작비를 투자 받게 되었고 3부작 로맨틱 코미디 웹드라마 '행복한 아홉수' 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웹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었



는데, 우리 학교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성대 영화제 수상이라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다. 웹드라마가 점점 뜨는 추세에 참신하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필요했다. 한 달 동안 웹드라마 소재를 고민했으나 틀에 박힌 생각들로 뻘한 스토리만 떠올랐다. 복잡한 머리를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메모해 나갔다. 그러다보니 스토리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결국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실 1인 미디어라 할지라도 촬영 현장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동생들을 찾아서 연락을 하였고 바쁜 와중에도 모두 흔쾌히 도와주었다. 정신없이 촬영을 끝내고 난 뒤, 편집에서 큰 위기를 겪었다.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컸지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기에 끝까지 붙들고 마무리를 하였다. 각자의 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겁게 작업해주고 힘을 주었기에 이 모든 작업의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예능 PD의 꿈을 가지고 현재 공부하며 일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PD가 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나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도전하는 상상력으로 재능에 대한 고민을 극복하다

코튼 T-셔츠 프린트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글. 박미래 (시각영상디자인과 12학번)



코튼 T-셔츠 프린트 디자인 공모전은 사실 적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한 회사에서 간단한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시기에 이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해야 내 전공에 도움이 될까, 그전에 디자인이라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일까, 재능이 없는데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시기 우연히 보게 된

한 인터뷰가 나에게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재능이 없다고 한탄만 하던 나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많은 작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달 동안 여러 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리고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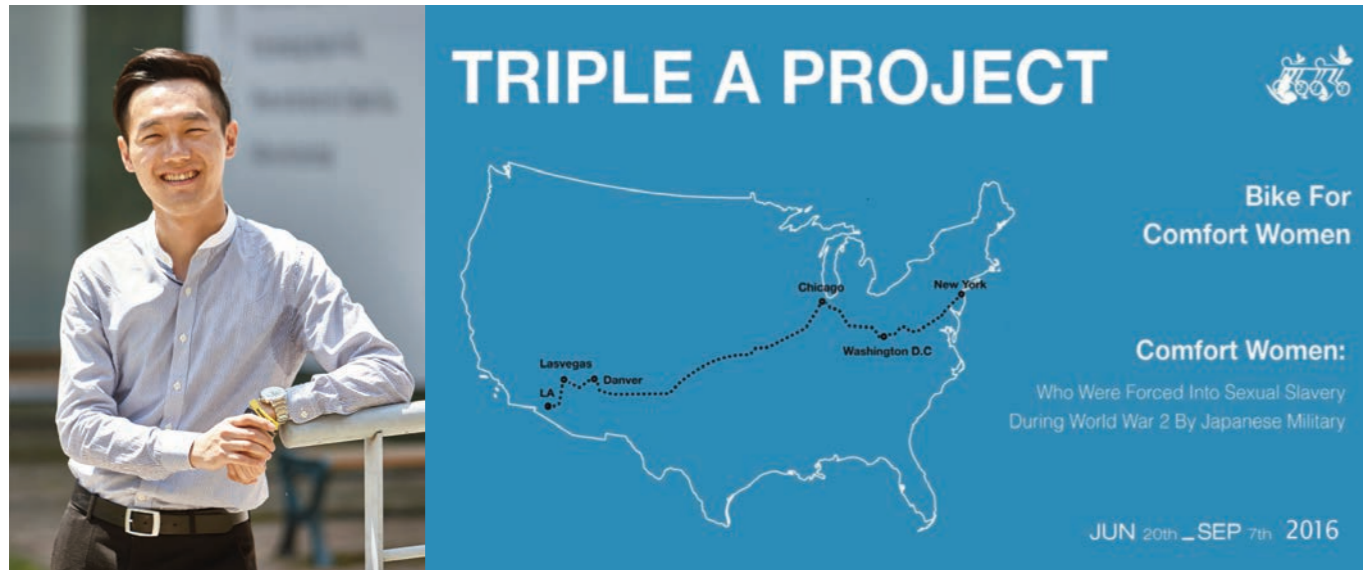
평소 작업물의 콘셉트와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 코튼 T-셔츠 공모전은 많은 아이템이 빠르게 떠올라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다. 코튼의 여러 장점들,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하나의 키워드에 담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숙면'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다. 코튼의 장점들 덕분에 면 소재의 옷을 입으면 숙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디자인 분야는 물론이고 문학, 음악, 연기, 무용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가 협업하는 일에 참여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일이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세계를 향한 페달링

자전거로 미대륙 횡단 준비

글. 김현구 (정보통신공학과 11학번)



자전거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겨났다. 처음 목표였던 국토종주를 마치고 나서 유럽횡단 혹은 미국횡단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미 대륙 횡단을 한 젊은 두 친구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도 나만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직접 그 젊은 친구들(지금은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을 찾아가 지금의 프로젝트인 TAP(Triple A Project) 2기를 뽑는다는 것을 듣고 준비한 끝에 최종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미국횡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함께 자전거로 미대륙을 횡단할 친구들과 국가대표 코치님께 지도를 받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았다. 나름 그동안 자전거로 단련된 몸이 있는데도 근육 경련이 다리부터 허리까지 생길 정도였다.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생각한다.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면 망설여진다. 그래도 그 현실의 벽보다 도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더 컸기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미대륙 횡단 라이딩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의 결심을 공식화하기 위해 SNS를 통해 혹은 주변 지

인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올 봄과 여름이 나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의 도전이 무사히 끝나고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돌아오면 TAP 3기의 기획도 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내년에도 도전할 무엇인가를 찾지 않을까 싶다.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상의 상상력으로 완성한 휴대용 3D 스캐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글. 강태윤 (기계학과 10학번)

입학 후 로봇제작 소모임 'RE-TURN'에 들어간 뒤 나는 임베디드 로봇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역 후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면서 취미 삼아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번 대회에 출품한 로봇은 내가 제작한 다섯 번째 로봇이다. 평소에 대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공부의 동기 부여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이번 작품 역시 자기만족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고 초기 예상보다 높은 퀄리티로 완성되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예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뻐하고 놀라웠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나는 보통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싶으니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겠다' 라는 동기로 작품제작을 준비한다. 이렇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상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임베디드 로봇 제작이라는 특성상 소프트웨어 제작과 하드웨어 제작을 함께 수행하는데 나는 작품 제작을 하기에 앞서 내가 익혀야 할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 일련의 흐름을 수없이 상상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입력기 하나라도 빠트리고 하드웨어를 제작하면 수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결과가 실현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라 생각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



웨어 구성을 상상했다. 소프트웨어 제작의 경우 상상력의 힘이 더욱 더 크게 작용하였다. 책상 앞에 앉아 구현해야 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상상을 마치고 나면 실제 코딩은 순식간에 끝나곤 하였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항상 즐겁다. 밤새 코딩을 하고 한여름 청계천에서 필요한 부품을 땀 흘려가며 찾아다니는 그 과정도 즐겁다. 필요한 서적을 학술정보관에서 양손 가득 빌러올 땀 설레서 무거운 것도 못 느낀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언제든 소모임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에 남는 시간을 작품을 위한 학습과 제작과정에 쏟을 수 있었다. 게다가 때마침 학과 사무실에 3D 프린터가 보급되어 이를 이용해 제작 과정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기계시스템 공학과를 전공하고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부전공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이맘때의 대학생들은 모두 하는 고민인 것 같다. 다들 전공이나 장기를 살리고 싶지만 그렇기 위해선 준비해야 하는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다. 나만의 특기는 개발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는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번 경험으로 좀 더 높아졌다. 이 부분의 능력을 살려 앞으로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



대표하는 상상

당당한 아름다움에 빛나는 우리 학교 홍보 대장

2016 홍보대사 '하랑' 14기와의 만남, '끼'와 '애교심'이 남다르다

2016년 한성대 홍보대사 16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올해로 14기를 맞는 하랑들은 한 해 동안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대학의 얼굴로서 홍보모델, 학교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각종 봉사현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14기 홍보대사 '하랑'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홍보대사의 자질을 마음껏 발산하여 총 16명의 새로운 홍보대사를 선발하게 되었다. 하랑의 선발 기준은 외모 보다는 인상, 성실성과 적극성을 반영하는 것이 포인트. 잘생긴 모델이 아닌 학교의 얼굴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일꾼으로서 한해를 이끌어갈 14명 하랑들의 2016년이 특별히 더 기대된다.

14기 하랑 8인의 특별한 에너지

우리 한성인의 곁에는 에너지원 같은 '하랑'이 있다.
14기 '하랑' 8명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한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소개한다.

1 푸른빛을 닮은 활달한 에너지이저 이지현 (의류패션산업 15학번)

14기 하랑을 대표하는 팀장. 그녀는 본인의 컬러를 경쾌한 블루로 표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빛으로 기분이 좋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하랑 팀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에너지이저이자, 처진 분위기를 단숨에 업 시켜주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다. 고교시절 임시박람회를 갔다가 한성대 부스에서 보게 된 하랑 단복에 그야말로 취향 저격! 그때부터 무조건 하랑이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하랑에 대한 저의 열정을 춤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파워풀한 춤을 선보인 이지현 팀장의 패기와 열정을 높이 사 단숨에 하랑이 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임을 하며 팀장으로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하랑은 제 대학생활의 전부이자 청춘입니다.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원들에게도 '우리가 하랑임을 자랑스러워하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자신이 맡은바 책임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2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무한 긍정맨 조승완 (부동산학과 16학번)

간절히 원하는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오랜 기간 입시를 준비했고, 소망하는 부동산학과에 오게 된 만큼 후배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 싶어 하랑을 지원했다. 조승완 하랑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함이 장점. 두어 달 남짓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학과 공부와 동아리 활동, 학생회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하랑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용무와 하랑 활동이 겹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묻는다면 무조건 하랑을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랑은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공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니 '자극'이라 말하는 그는 살면서 나 혼자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

가 되고 싶단다. 조승완 하랑의 목표는 중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견문을 쌓는 것이다. 아직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늘 배우는 자세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은 바람을 전한다.

3 현모양처를 꿈꾸는 '혜인맘' 정혜인 (패션디자인학과 15학번)

결국은 사람이 자산이다. 정혜인 하랑은 지난해에 이어 홍보대사를 연임하면서 좋은 사람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한다. 수시박람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설계를 해주는 하랑



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싱숭했다. 정혜인 하량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홍보대사가 체질이라 말하고 웃는다. “패션디자인학과가 2학년이 되면 과제가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량으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어요.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도 또 배우는 것도 참 많고, 저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것이 하량이었기 때문이죠.”

지난해 일 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정혜인 하량은 주어진 자리마다 확실하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의전업무를 설 때는 절도 있게 정해진 행동만 하려했고, 동기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놀 줄 아는 등 상황에 맞는 행동하는 유연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워낙 남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 사이에 ‘헤인맘’으로 통하는 그녀에게 하량을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니 ‘그림자’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도 많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4 매력 넘치는 팜파탈이라 불러다오

지유은 (역사문화학부 15학번)

지유은 하량이 2년 째 홍보대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는 일반 팀원이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를 달래려 14기 하량에 지원했고, 올해 부 팀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입시설명회를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전까지는 솔직히 내가 하량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남자고등학교에 가서 엄청난 환호를 받으니 ‘아 이런 맛에 홍보대사를 하는구나’ 하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죠.”

또한 대학 홍보대사 연합의 활동으로 참여한 ‘화려한 손길’ 프로그램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꽃을 심는 작업도 좋은 기억으로 손꼽는다. 지난해 단단히 뿌리를 내렸으니 아마 올해에도 예쁘게 꽃피웠을 것이라며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 고등학교 시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대학에서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싶다는 그녀는 항상 학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까닭에 더 사랑하고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현재 하량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성대학교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 말하는 지유은 하량은 치명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팜파탈을 꿈꾸고 있다.

5 사랑스러운 러블리 화이트

이혜진 (영어영문학부 16학번)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을 꿈꾸며 자연스럽게 학교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이혜진 하량. 멋진 단복을 입고 학교를 소개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하량이 되고 보니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멋진 사람으로 비춰질 거란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하량이 되면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자신감이 부족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홍보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흥



보대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큰 만큼 여러 방향으로 많이 배우고 있고, 이를 양분 삼아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량으로서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노래 <무조건>을 씩씩하게 불러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아냈다는 이혜진 하량은 자신을 하얀색의 감성을 담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하얀색이 주는 편안한 느낌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다. 어떤 색과 매칭해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두루 잘 어울리는 화이트의 감성을 앞으로도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량이라는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이혜진 하량의 열정을 응원한다.

6 긍정의 미소를 가진 초절정 밝음이

최영임 (경영학부 16학번)

유난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표지모형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지원한 홍보대사가 이토록 재미있는 일인지 미처 몰랐다는 최영임 하량. 어떤 모습이 가장 예쁜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어필하는지를 잘 아는 영민함이 그녀의 장점이다.

“하량 단복을 정말 입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실컷 입을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잘 들어주는 편이라 입시상담을 나가면 정말 잘 할 자신이 있어요.



하량으로서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부도로 워크숍 갔던 일이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네요.” 그녀가 생각하는 하량의 자격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과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유지할 것, 자신 스스로도 학교 대표라는 생각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 남들보다 더 노력하게 되고 평소 언행에도 조심하게 된다며 하량 덕분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라 한다.

7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주디

강승현 (IT응용시스템공학과 16학번)

영화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토끼 경찰관 주디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귀여운 캐릭터. 자신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고 또 닮고 싶어 강승현 하량은 자신을 표현하는 한 마디로 주디를 선택했다.

“하량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정시박람회 때 한성대 부스에서 본 홍보대사 누나, 형들이 멋져 보여 나도 대학생이 되면 지원해야지 마음먹었고, 바라는 대로 이루고 나니 정말 잘 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현 하량이 홍보대사를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성대 이미지를 개선시켜나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신입생 시절을 많은 경험치를 쌓으며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한다는 그는 학우들의 서포터이자 분위기 메이커로서 항상 예의바르고 착한 하량이 될 것을 다짐한다.

8 발칙한 일탈을 꿈꾸는 지독한 성실이

박가영 (역사문화학부 15학번)

하량으로 지낸 두 달 간의 소감을 물으니 무엇보다 하량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만족스럽다. 박가영 하량은 이번 주부터 홍보대사로 고교 입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평소 꼭 해보고 싶던 일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박가영 하량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소리는 성실한 아이라는 것. 한 가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해내는 스타일인데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알아주는 성실자로 살다 보니 가끔은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는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튀는 것을 싫어하는 어쩔 수 없는 성실이어서 그녀가 마음먹은 대로 이번 여름방학에 머리 색깔이 바뀌어 있을지는 다음 학기에 확인할 일이다.

“현재 제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훗날 대학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때 하량이 되길 참 잘 했다는 말을 제 손자 손녀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일꾼, 하량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한성’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교두보

곽성학 한성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한번 한성인이면 영원한 한성인’임을 강조하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 곽성학 회장은 모교에 대한 애정과 후배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 그는 우리 후배들이 졸업과 동시에 몸은 학교를 떠나더라도 마음으로는 늘 모교를 생각하고 그리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재학생과 동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한성으로 거듭나도록 총동문회와 학교가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자부심으로, ‘사랑해요 한성인’

목도리 3천 점을 요양원 및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곽성학 회장의 취임 후 첫 행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사랑해요 한성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대학원 총동문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랑해요 한성인’은 한성대학교를 중심으로 재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이 함께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운동으로, 앞으로 총동문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곽성학 회장은 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총 2억 6천 만 원을 학교에 회사해 한성인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 총동문회장 자리를 두 번째로 맡다보니 책임감도 무겁고, 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체 8개 각 대학원별 동문회장들이 탄생했어요. 이 조직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대 각 대학원별 동문회장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곽성학 회장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국방과학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각각이 주대학원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과 동문들 간에 상호 MOU를 체결해 재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제후를 해나가면서 학교와 동문회가 같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학과 하면 우리 학교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국방과학 하면 한성대가 최고라는 식으로 각 대학원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강한 대학원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나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학 회장이 작지만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학교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중심을 지키는 후배들이 되길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학위취득과 함께 바로 자기 할 일을 찾아 학교의 품을 떠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동문회와 재학생 간에 우정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곽성학 회장은 동문회가 먼저 앞장 서서 재학생들의 소속감을 드높이고, 졸업 후에도 동문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선후배가 함께 하는 ‘한성인의 밤’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재학생이든 교수든 교직원이든 한번 한성대에 몸담은 이들은 모두가 한 울타리 안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1월 11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한성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한성인의 이름으로 영원한 우정을 이어가려합니다.”

곽성학 회장은 올 연말 있을 한성인의 밤이 사제시간이나 동문,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작지만 강한 한성인의 고리를 만드는 첫 시작인 만큼, 대학원뿐만 아니라 한성대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는 한성인의 밤 행사가 소통 한마당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앞으로 대를 이어 우리 후배들이 이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아마 힘든 숙제를 해결한 기분일 것이라며 웃어 보인다.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만을 앞세워 자기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는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기 위함일 겁니다. 학교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학생과 교수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와 향후 진로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때 빛을 발하는 법. 사회에 적용하려면 몸과 행동이 먼저 부딪쳐야하는데 지금처럼 지식과 지혜만 앞세우고자 하니 힘이 드는 것이라 말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자기 분야에서 스스로 개척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41년 간 제조업에 몸담아 온 사회선배로서 리더가 되려면 수평으로 이동하지 말고 수직으로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 밑이 다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인의 이름으로 인연을 맺고 한 식구가 된 이상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세운 목표로 성공하는 자랑스러운 한성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꿈을 펼쳐 나가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황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예로부터 배우고 익히는 일은 기쁜 일이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제약이 뒤따르는 일. 하고자 하는 열의는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까닭에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과 성실함으로 만학의 즐거움을 이야기 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어른의 부재(不在)라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김종황 선배님을 만났다.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

너무 흔해서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김종황 선배님은 몸소 실천하며 당당하게 증명해보이고 있다. 이미 30년 전에 석사 학위를 따고 기나긴 '공부휴지기'를 가지는 동안에도 그는 그때 계속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년 퇴직 후 못다 이룬 학업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10기생으로 다시 학생이 되었다. "경제부동산학과 9기 때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심기일전해 결국 입학에 성공했지요. 나이 먹으면서 정말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황 선배님은 평소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유지해온 덕분에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1950년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돋보이는 커녕 안경도 쓰지 않고 신문을 읽을 정도.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더 중요해서 본인이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중년이 넘어가면 여실하게 증명된다며 건강할 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 인생을 통틀어 박사과정처럼 공부를 '빡세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5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밤샘도 불사해야 하는데 그래도 거뜬한 걸 보면 평소 건강관리를 참 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요."

김종황 선배님은 10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 지하철건설공사현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30년 동안 담당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보냈다. 건설이라는 업무 특성상 밤샘 일도 많고 체력 소모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지치던 일들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웃는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우리 후배들도 지금을 회상하며 미소 지을 날이 오도록 미리 준비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의 선배로부터 배우는 세상의 지혜

김종황 선배님은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공부하는 시간과 그 밖의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이 인생을 충실하게 매워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김종황 선배님이 경제부동산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써 먹을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도시행정'으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그간 배운 이론과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를 통해 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사학위까지 얻으면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한성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몇 번의 고비도 맛보고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탁월한 선택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황 선배님은 부동산학과 백성준 교수의 지도하에 <도시철도 건설 및 원형 비용구조분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하고 2, 3차 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지도교수보다 학생의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라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궁금한데, '스승과 제자는 나이를 초월하는 관계'라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제자로 만난 인연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는 상호교류에서 비롯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김종황 선배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접받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최소한 기본예의들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다고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고, 그 꿈을 이루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김종황 선배님. 만학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모자라, 많은 이들이 버킷리스트로 소망하는 세계일주 여행을 30년 동안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은퇴라는 말보다는 영원한 현역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본다.

Hansung News

본교 학습방법 개선 워크숍 열려

지난 5월 19일 본교 미래관 ELC룸에서 3차 학습법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학습법 워크숍 특강은 'imakeme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박수빈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성공을 이끄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 핵심역량(K-CESA) 결과 학생들의 말하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재학생이 PPT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방법, 스피치 전략을 습득해 발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린 것이다.



본교 2017년도 정시 모집 문·이과 통합 선발

본교는 올해 고교 3학년 대상의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본교 전주상 기획협력처장은 "학생 선택권을 확대해 전공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 수요에 맞춰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모집(수능) 선발 인원은 입학정원(1458명)의 27.7%(404명)

다. 이 중 예체능 계열(66명)을 제외한 338명은 학부·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다. 신입생은 학부가 아니라 반으로 편성돼 1학년을 이수하고 2학년이 될 때 학부와 '트랙'(전공별 세부 단위)을 선택한다. 모든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트랙에 배정된다. 타 대학이 전공별로 정원을 정한 뒤 지원자가 몰리면 학점 순으로 인원을 정하나 이 대학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4학년에서도 학부·트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본교는 이에 따라 올해 기계공학·전자공학을 각각 독립학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IT융합학부를 신설했다. 인문대·사회과학대에선 기존 학부·학과를 모두 폐지하고 인지응용언어·금융데이터 등 19개 트랙을 개설했다.



본교 노동조합 장학금 전달

본교 노동조합이 지난 4월 19일 학교에 장학금 22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본교 노동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본교 노동조합지부는 지난 2011년 학교에 5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1년에 1번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억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에도 각종 행사를 축소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마련·전달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226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전달해 총 1억3700만 원의 장학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본교-한국외대 중국어 교육 MOU 체결

지난 4월 25일 본교 미래관 회의실에서 김승천 한성대 언어교육원장, 박흥수 한국외국어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묘준매 공자아카데미 중국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 교육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두 기관은 '학술 및 교육 발전과 우호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본교에 중국어 교육을 위한 '공자학당'을 설립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중국어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중국과 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자학당의 신뢰도 높은 중국어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교 김승천 언어교육원장은 "이번 협정식을 통해 학술과 교육발전을 이루고 일반인에게도 양질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본교 공자학당 중국어 강좌 안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지난 4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간의 중국어 교육 협정식을 체결하고 중국어 유류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며, 평소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고 중국어를 배우고자 했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본교 에듀센터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본교 SK창업아카데미, DNA 오태수 동문 초청 특강 개최



수 대표 동문 특강 개최

본교 SK창업아카데미는 지난 4월 26일 오태수 동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오태수 동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성장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DATA & ANALYTICS:DNA)의 대표이다. 오태수 동문은 후배들에게 창업 실패담을 소개하며 창업 노하우를 공유했는데, 그는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장 조사 등 지속적인 창업경영 공부에 더 많은 투자와 실제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본교 벽화 봉사단 언론 보도

본교 정현이 교수가 포스트 스튜디오라는 수업 명으로 벽화봉사를 한 결과에 대해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연합뉴스는 도시재생 사례 전시회를 통해 한성대 벽화 봉사단을 초청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열린 도시재생 사례 전시회에서 서울시 홍보대사인 텔런트 김나운(왼쪽 두 번째부터)과 도시재생본부 홍보대사인 아나운서 신영일이 한성대 벽화 봉사단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본교 홍보대사 '하랑' 임명식 열려

본교 제 14기 홍보대사 '하랑' 임명식이 지난 4월 8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본교 홍보대사 '하랑'은 학교의 얼굴로서 홍보모델, 학교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등의 일을 한다. 지난 2015년에도 호국보훈 행사, 삼선동 선녀축제, 삼선동 어르신 삼계탕 접대를 위한 봉사에 참여했다. 또한 삼선동 주민센터와 비둘기 봉사단 등과 함께 취약 계층의 소년 소녀 가정과 어르신 다문화 가족을 위한 김장 봉사 참여 등 교내외의 크고 작은 봉사

참여했다. 이번 14기 홍보대사 '하랑'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 접수를 시작하여 직접 5~10분 동안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홍보대사의 자질을 마음껏 발산, 16명의 새로운 홍보대사를 선발했다.



'2016 춘계학술대회 & KSCon Day' 개최

본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원장 정진택)과 동문회(회장 김인수)가 지난 4월 16일~17일 이틀간 교원 비전센터에서 '2016 춘계학술대회 & KSCon Day'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미래 산업변화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의 이해와 컨설턴트 역량 제고,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서승원 청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광성학 회장(한성대학원 총동문회), 김인수 회장(KSCon동문회), 정진택 원장(KSCon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교수와 재학생 및 졸업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 23기 한성 앰버서더, 꽃과 고궁이 함께한 중간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8일 금요일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에서는 제 23기 앰버서더 학생들과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약 60여 명과 함께 '중간 간담회'를 가졌다.

중간 간담회는 지난 3월 16일 '제 23기 한성 앰버서더 결연식' 이후로 참여 학생들이 약 4주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활동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등 지금까지의 앰버서더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행사다.

이 날 한성대 앰버서더 학생들과 한국어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함인정, 송문당, 경춘전, 풍기대 등 총 6개의 경북궁 내 문화재들을 직접 찾아보며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등의 미션 수행 활동을 하였으며, 평소 한 곳에 모이기 힘들었던 다른 앰버서더 학생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활동이 끝나고 에듀센터에 다시 모여 이루어진 결과보고회에서 학생들은 각자 조사한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중간 간담회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로이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성북구 미래나눔학교 시범사업 발대식 열려

지난 3월 29일 창의관 1층 소강당에서 본교와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학습센터), 비영리단체 JUMP(장학금 선발·관리)가 협력해 한성대-성북구 미래나눔학교 시범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성북구 관내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생 인재 육성을 목표로 본교와 비영리단체 JUMP, 성북구청이 힘을 합쳐 교육을 통한 나눔의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최종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4월 4일부터 밤골아이네 지역아동센터(2명), 사랑지역아동센터(5명), 큰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3명) 등 배정된 학습센터에서 교육봉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1년간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1인당 4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본교 무용과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사업" 우수팀 선정

지난 1월 13일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2016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운영 봉사료 무용학과(12학번) 김의정, 금보라, 김연지, 조다은 학생들의 봉사 기사가 언론에 보도 되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스쿨은 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이 팀들 중에 우수팀 2개 팀을 선발, 그 중 하나의 영광을 본교 대학의 무용과 학생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Hansu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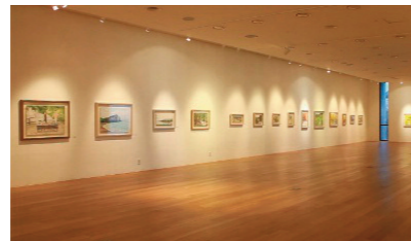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제8회 한성대 영상제 개최

지난 2월16일(화) 미래관 D.L.C룸에서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제8회 한성대 영상제'가 개최되었다. 100여편의 작품이 전국의 대학생들로부터 접수되어 3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편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최종 대상은 'microwave'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든 한성대 문준영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준영 학생(애니메이션과)은 "늦깎이 사회인 초년생으로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 밖에도 1등 ▲ '가깝고도 먼 해원' 김경록(서일대) ▲ 'depress' 이자현(건국대), 2등 ▲ '그거 알아?' 김원호(공주대) ▲ '종이피아노' 민현기(공주대), 3등 ▲ '얼간이 해장국' 김재홍(명지대) ▲ '행복한 아홉수' 정지윤(한성대)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성대 교수 미술 동호회 '그려도', 제4회 전시회 개최

지난 2월 한성대학교 교수 미술 동호회 '그려도'가 서울 인사동 아라(Ara)아트 홀에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그려도'의 전시회에는 사람, 나무, 꽃, 문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을 수채화, 유화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같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행지의 멋진 풍광을 그려낸 조인숙 교수는 "이번 전시회는 아마추어로서 그림을 그릴 때 경외와 겸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그려도'의 마음가짐을 드러냈다"며 "올해 전시회를 필두로 그림에 대한 애정을 가득 품고 있는 '그려도'의 힘찬 비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랜드프로, 한성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업무협약

부동산 실무 및 재테크 전문 교육기관 랜드프로는 부동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성대학교 및 한성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지난 1월 22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 랜드프로는 랜드프로 및 에듀프로 회원들에게 한성대학교 입학, 한성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입학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및 메일로 안내한다. 랜드프로 홈페이지에 신규로 가입한 본교 및 대학원 부동산학과 학생 전원은 부동산 입문, 부동산 중개실무, 부동산 경매투자 등 랜드프로 전 강좌 10만 원 수강 할인권과 함께 자사 브랜드인 에듀프로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V.I.P연회원반 50% 수강할인권을 제공받게 된다.



본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산학연계 창의융합 업무협약 체결

본교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원장 윤강섭)은 지난 1월 26일, 교육·연구분야의 발전과 창의융합인재의 양성, 산업 및 의료기술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 및 의료기술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산업체 현장실습 및 교육, 디자인·IT분야의 발전과 지원, 교직원 및 학생 자원봉사활동, 산업체 임직원의 위탁교육 및 강의참여, 학술정보의 교류, 기타 산업교육과 산업 기술의 진흥,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의 진료와 건강검진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본교 무용과 김현지 학생 한·중국제 무용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수상

본교 무용과 김현지 학생이 지난 4월 9일 열린 제 11회 한·중국제무용경연대회에서 대학부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한 독립만세운동 97주년 기념 제11회 한·중국제무용경연대회는 상명



아트센터 계당홀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학생부, 대학부, 일반부 등 모두 239팀 296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학생부에 참가한 예비 무용가들의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다고 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오는 6월 5일, 국립극장 별오름에서 열리는 수상자의 밤 공연에 참가하는 자격도 주어진다고 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선출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과)가 학교법인 창성학원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창성학원은 대전 중앙중·고, 대덕대 등 5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창원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창원 신임 이사장은 미국 뉴욕주립대(Albany)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성대 교무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한국조직학회 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보사회와 현대조직』, 『새 조직론』 등을 집필했고,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Hansung News

국제대학원 동문 '마약전문가' 고광언씨 수필가 등단

30여 년간의 경찰생활을 지난해 마치고 전문분야를 살려 제주중독예방교육원을 창립한 고광언 동문이 '한국문인' 신인문학상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고광언 동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수사 전문가로 2003년도내 최초로 한성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마약학과를 졸업했다. 재직 중에 중동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11개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강사이기도 하다

차정애 동문 광주시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 대상 수상

본교 차정애 91학번 산업디자인과 동문이 광주백자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광주시가 백자문화의 계승·발전과 조선백자

의 본고장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에서 차정애 작가가 출품한 작품 '사계'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차정애 동문의 출품작 '사계'는 백자항아리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네 그루의 나무와 아침 무렵 안개 걷힐 때의 산을 표현한 작품으로 심사위원회들로부터 한국적 미의식의 표현과 작품성 부분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대학원 총동문회 2016년 정기 이사회 D.L.C룸 개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곽성학)는 지난 4월 1일 오후 5시 본교 D.L.C룸에서 2016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는 다른 년도와는 달리 본교 D.L.C룸에서 개최하여 120여명의 이사들이 모처럼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모교의 발전하고 변

화된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구형회(국방과학대학원 동문 및 현주임교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려 각 대학원의 회장 임명장 및 임원 임명장을 수여했고 각 대학원을 대표하는 회장들에게는 총장님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곽성학 총 동문회장은 각 대학원 동문회의 조직을 회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각 대학원의 자치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여 총동문회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상한 총장은 "대학원 발전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곽 총동문회장은 이번 이사회를 통하여 동문회 이사들에게 '사랑해요 한성인' 슬로건 아래 "한성대학교 대학원동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봉사에 많이 참여하자"고 이사들에게 제안했다.



대학원·동문회 이전 및 발전을 위한 1억1천2백만원 기부금 약정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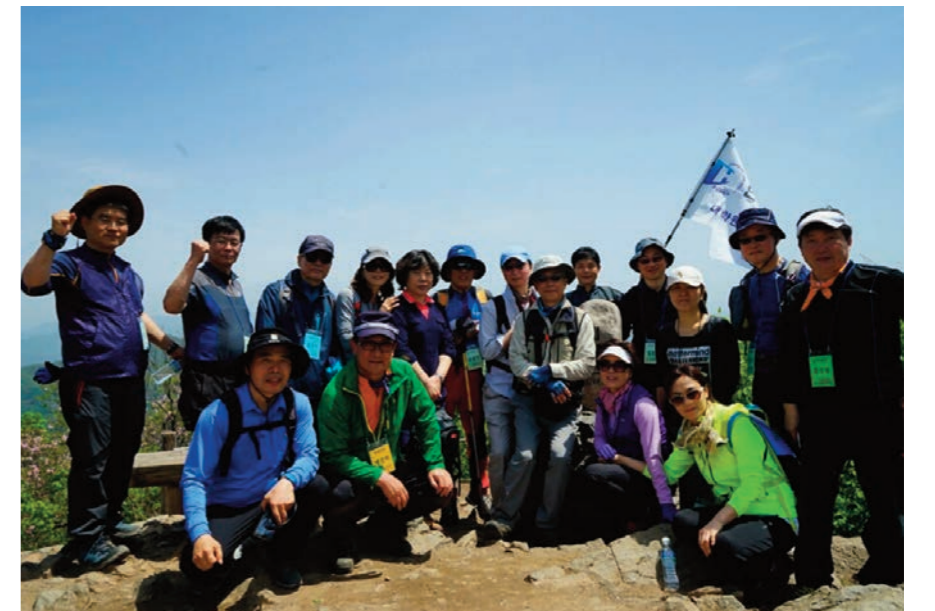
대학원(원장, 최용식)은 지난 1월 15일(금) 세종호텔에서 "대학원·동문회 이전 및 발전위원회"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은 2015년 동문회 산행을 통해 종합관 건축과 대학원 및 동문회실 이전, 그리고 후배들이 사용할 강의실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발족, 6개월 이상을 준비했다. 발전위원들은 대학원 발전을 위해 최소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훈 이사장, 정태원 총장, 보직교수, 각 대학원장, 곽성학 대학원 총동문회장 등, 총 52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합관 건축 현황과 대학원 및 동문회실 이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설립 배경 등에 대한 설명 이후 기존에 기부금을 내신 분들께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과 만찬으로 행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곽성학 총동문회장은

대학원 건축과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약정했고, 김이수(박사과정, 경제부동산) 500만원, 한필연(박사과정, 행정학과) 300만원, 윤종근(행정대학원 동문) 300만원, 권영숙(행정대학원 동문) 100만원, 총 1억1천2백만원(112,000,000원)을 약정했다. 또한 곽성학 회장이 2010년도에 대학원 수련원 조성 건축기금으로 기부한 1억 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14분이 기부하신 1천5백1십만 원 등, 총 1억1천5백1십만 원(115,100,000원)도 대학원 발전과 건축기금으로 명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향후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계속 열어 대학원 발전과 건축 등을 위해 기부금을 내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발전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며, 나

아가서는 대학원 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사랑해요 한성인 운동"과 함께, 대학발전에 공헌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원 총동문회 춘계 아우회 개최

본교 대학원 총동문회에서는 5월 5일 '동문간 화합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2016년 춘계 아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총장, 대학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과 동문 및 가족, 원우들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벼운 산행에 이어 장기자랑과 시낭송, 이벤트 행사가 열린 이날 아우회는 맑은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2017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1.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2017학년도 수시 전형요약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고	
			2016 (A)	2017 (B)			
수시	정원내	적성우수자	258	-	-258	적성우수자 전형 폐지	
		교과 성적 우수자	기본교과	298	514	216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전형 확대
			전교과	160	219	59	교과성적우수자-전교과 전형 확대
			영어교과 위주	43	-	-43	영어교과위주 전형 폐지
		실기우수자	71	80	9	실기우수자 전형 확대	
		특기자	무용	6	6	-	
			미술	8	-	-8	미술 특기자 전형 폐지
		한성인재	-	180	180	학생부종합-한성인재 전형 신설	
		국가보훈대상자	32	32	-		
		배려대상자	16	32	16	배려대상 전형 인원 확대	
	특성화고교졸재직자	2	-	-2			
	정원외	농어촌학생	56	56	-		
		특성화고교 졸업자	21	21	-		
		특성화고교졸재직자	83	80	-3		
재외국민과 외국인		29	28	-1			
	단원과 특별전형	14	-	-14	단원과 특별전형 폐지		
수시 모집인원(비율)			1,097 (64%)	1,248 (75%)	151	2017학년도 : 1,644명 기준 (정원내 1,458명 / 정원외 158명 / 재외국민 28)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사항

모집시기	변경사항	2016학년도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모집단위 / 인원변경	-
	적성우수자	전형폐지	적성우수자 전형
	영어교과위주	전형폐지	교과성적우수자-영어교과위주
	특기자-미술특기자	전형폐지	특기자-미술특기자 전형
	단원과 특별전형	전형폐지	단원과 특별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정원내-신설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내 학생부 종합일반학과(244명) - 한성인재 : 180명 - 고른기회-국가보훈대상 : 32명 - 대학독자-배려대상 : 32명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반영교과별 과목	본교 지정 반영교과 세부과목
		특성화고교졸업자 (실기학과)	성적 산출 시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만을 반영
		반영학기	재학생 - 3학년 1학기 까지 재수생 - 3학년 2학기 까지
수시	실기위주 반영비율	실기우수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실기우수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응용합격디자인학부(주/야), 인테리디자인(주)	ICT디자인학부(주/야) 학생부 40% + 실기고사 60%

모집시기	변경사항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고사과목	모집인원	고사과목	모집인원	
수시	실기고사-ICT 디자인학부(주)	변경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16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택 1 56
			상황표현	8	상황표현	
			발상표현	10	발상표현	
	변경	실기고사 대상 : 정물		실기고사 대상 : 정물 사진 이미지		
수시	실기우수자, 교과성적우수자, 배려대상자 모집인원 확대	전형명	모집인원		증감 (B) - (A)	
			2016 (A)	2017 (B)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298	514	216
			교과성적우수자-전교과	160	219	59
			대학독자적-사회배려대상자	16	32	16
			실기우수자	71	80	9
			계	545	845	300

2017학년도 수시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반영비율 (100%)	반영교과						
수시	학생부 교과 (위주)	교과성적우수자	기본교과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사회과학부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사				
				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주	IT공과대학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과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전교과	주	IT공과대학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전교과) 100%	전교과				
				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주	IT공과대학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수시	학생부 종합 (위주)	한성인재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사회과학부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IT공과대학	없음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1단계 3배수
									고른기회	국가보훈대상자		
대학별 독자적	배려 대상자	없음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사회과학부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IT공과대학	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사회과학부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IT공과대학	없음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사회과학부(야) /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	없음										
수시	실기 위주	실기우수자	예술학부(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30% + 실기고사 70%	국영수사						
			ICT디자인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농어촌학생	ICT디자인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국영수사						
		특성화고교 졸업자	ICT디자인학부	없음	학생부(전교과) 40% + 실기고사 60%	전교과						
		특기자	무용특기	예술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20% + 실기고사 80%	국영수사					
기타	재외국민/외국인	전 모집단위	없음	면접고사 100%								

2.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 2017학년도 수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단과 대학	학부(전공)	정원내(수시 선발인원)							정원의외(선발인원)					계												
		학생부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학생부 종합			실기위주														
		교과성적 우수자	기초교과	한성인재	고른 기회	대학 독자	배려 대상	실기 우수	특기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교과	국가 보훈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크리에이티브인문 예술 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	43	20	40	8	8									119	[주간] 9명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	26	12	30											68	[야간] 5명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4	2	6															
현대무용								4	2	6																
발레							4	2	6																	
미래 융합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주)	62	25	25	10	10									132	[주간] 9명	[주간] 4명	[야간] 40명								
	사회과학부(야)	63	26	25											114	[야간] 7명	[야간] 4명									
디자인 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28	12	5	2	2									49	[주간] 2명	[주간]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32	13	5											50	[야간] 2명	[야간] 1명									
	ICT디자인학부(주)							56							56				[주간] 3명	[주간] 2명						
	ICT디자인학부(야) 게임일러스트레이션							12							12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	7	3												10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	7	3												10			[야간] 40명								
IT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부(주)																									
	컴퓨터공학부(야)																									
	기계전자공학부(주)	[주간] 163	[주간] 70	[주간] 25	[주간] 12	[주간] 12			[주간] 282	[주간] 9	[주간] 4															
	기계전자공학부(야)																									
	IT융합학부(주)																									
	IT융합학부(야)	[야간] 83	[야간] 35	[야간] 25					[야간] 143	[야간] 10	[야간] 4															
	스마트경영공학부(주)																									
	스마트경영공학부(야)																									
총 계(명)		514	219	180	32	32	80	6	1,063	53	19	80	3	2	157											

* IT 공과대학의 경우, 학부구분없이 입학하여(주간/야간 단위별 통합선발) 2학년 진학 시 학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충원 이월 인원 포함 (7명)

생각을 맛있게 섞어내다

상상력은 저마다의 생각을 잘 섞어내는 힘입니다

학생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내어온 상상력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한성은 혁신을 살찌우고 미래를 배부르게 할 맛있는 상상력을 만듭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2016년 8월 완공예정인 미래형캠퍼스 '한성대학교 종합관'



2017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9. 13(화) 10:00 ~ 9. 21(수) 17:00
- 서류접수 : 2016. 9. 22(목) 17:00까지 • 입시상담 : 02)760-5800
-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참조